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일

부활절 의식 / 의식서 7-3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부활절 의식서 37-46]

- 제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사도경 : 사도행전 1, 1-8 / 248
- 복음경 : 요한 1, 1-17 / 96
- 부활절 계란 축복 / 의식서 46
- **사랑의 대만과** / 예식서 47-69

임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의 2017년 부활절 메시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70일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하늘, 땅 지옥, 온 세상이 이제 빛으로 가득 찬'(부활 카논, 3오디) 위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대한 축일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축일에 '죽음의 죽음을 찬미합시다. 지옥의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찬미합시다. 기쁨으로 모든 일의 주역이신 분을 찬양합시다.…'(7오디) 요한 흐리소스톰 성인과 함께 "우리 구세주의 죽으심이 우리를 해방하셨으니,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 말지어다."(교리 말씀)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다시 되뇔 수 있는 위대한 순간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덤에서 솟구쳐 나온 기쁨과 빛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죽음의 공포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 생활이 부활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정화입니다. 왜냐

☞ 2면으로 계속

☞ 1면에서 계속

하면 부활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보낸다면 지상에서의 그의 삶은 어떠한 이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매일 생활에서 부활을 얻을 것이고 영원히 부활을 경축하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경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마음의 정화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나타납니다. :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기 전, "구세주 그리스도여 천사들이 하늘에서 주의 부활을 찬송하나니, 땅에서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기에 합당케 하소서."라고 여러 번 부르는 성가에서 보여집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정화합시다. 그러면 부활의 범접할 수 없는 광채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를 뵈리로다.…'(1오디)라는 시작하는 아름다운 부활 카논을 부르는 데서 보여집니다.

우리 마음의 정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시작이고, 가운데이고, 마지막인'(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설교 49) 지속적인 회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을 계속 걷는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의 두 제자가 만났던 것처럼 "다른 모습의"(마르코 16,12) 그리스도를 매일 생활에서 만납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 후 "사십 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써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사도행전 1,3)들려주셨듯이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오 28,20)라고 약속하신 것에 따라 지금도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아픔, 병, 어려움, 슬픔, 죽음 등이 "우리들의 눈을 방해하여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루가 24,16 참조)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의 어떠한 형제의 모습에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죄에서 벗어나고 덕을 쌓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삶이 회개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합시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행합시다. 이렇게 '서로 얼싸안으면서' 매년 지상에서의 부활절을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경축으로 지내게 될 것이고 하늘의 부활절을 영원한 기쁨으로 경축하는 데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 성직자들, 수도자들 그리고 주 안에서의 모든 협조자들을 대표해서 모든 신자분들과 특히, 새로 세례를 받은 신자분들 모두가 '믿음의 잔'과 '선의 풍요함'(요한 크리소스톰, 교리 말씀)을 만끽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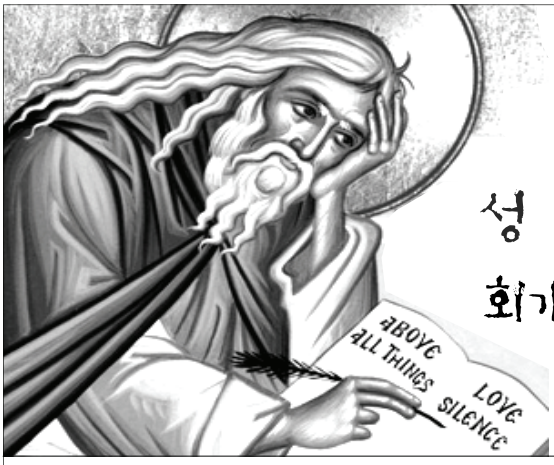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필립비 4,4)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영광과 영원한 큰 사랑과 함께

✝ 한국의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성 이삭 시리아인 V

회개라는 선물

회개는 은총을 넘어서는 은총으로서 인류에게 주어졌다. 회개는 하느님에게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이며,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참으로 이것(제2의 탄생)을 얻었다. 우리는 회개를 함으로써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남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는 자비를 얻는 길이며, 자비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문이 열려 있다. 이 문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출입구를 벗어나서는 자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 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로마 3,23-24) 이처럼 회개는 제2의 은총이며, 신앙과 외경(畏敬)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생겨난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영적인 에덴 동산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회초리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고 나면 그것(두려움)은 우리를 떠나 사라지고 만다.
에덴 동산은 신적인 사랑 안에 있으며, 그 안에는 모든 복된 것들의 낙원이 펼쳐져 있다. 이곳이 바로 바울로 사도가 초자연적인 자양물(滋養物)들을 공급받은 곳이다.

'셋째 천국'에 붙들려 올라간 뒤, 바울로 사도는 소리쳐 말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고린토 전 2,9)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용미리 부활 성당 성찬예배

다음 주 4월 23일 토마 주일을 맞이하여 용미리 부활 성당에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로 바울로 박종래, 마리나 임영님, 포티니 민선기, 마카리오스 강인규, 테오도로스 홍인엽, 루끼아 박은영, 엘레니 전나래, 넥타리아 이윤선, 하리스 이재인, 이리나 Kochurova, 니끼따스 홍민준이 오랜 준비 끝에 거룩한 성찬예배와 함께 거행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세례, 견진성사와 함께 이루어진 성찬예배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님과 로만 카프착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에 의해 거행되었습니다. 대주교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거룩한 감사의 성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빛을 받은 신자들에게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회개와 감사의 성사에 참여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성찬예배가 끝난 후 새로이 빛을 받은 신자들을 환영하는 사랑의 오찬이 이어졌습니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8일 라자로 부활 토요일에 요한과 아나스타시아의 아들 파이시오스 박선우가 유아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아 새롭게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길,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 4월 17일(월) 성 마카리오스 고린토의 주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

제17-16호 / 2017. 4. 16.